

하나님의 심판에 놀라다

조나단 에드워즈 (1703-1758)

"시온의 죄인들은 두려워하고 위선자들은 두려움에 놀랐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느냐 우리 중에 누가 영원한 불과 함께 거하겠느냐"-이사야 33:14.

하나님의 공언하는 백성 중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는 본문 다음 구절인 "의롭게 행하며 정직하게 말하는 자"(사 33:15a)에서 말하는 참으로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종류는 "시온의 죄인" 또는 위선자들로 구성됩니다. 이 장에서 선지자는 먼저 이 두 종류의 인간에 대해 서로 바뀌어서 말하면서,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끔찍하게 위협하고 비난하고 다른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은혜로운 약속으로 위로하고 있음을 관찰해야 합니다.

"시온에 있는 죄인은 누구입니까?"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자연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시온, 즉 옛 다윗의 도시는 교회의 한 유형이었으며, 성경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아마도 다른 어떤 이름보다 시온이라는 이름으로 더 자주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온은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 또는 참된 성도들의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 이름은 외적으로 직업과 외적인 특권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로 구성된 가시적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이 본문에서 시온이 의도하는 바입니다.

세상의 대다수는 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양떼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작은 무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죄인들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의 창백한 사탄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과 참 종교를 고백하지도 않고 그 외적인 의식에 참석하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외에도 시온의 죄인들이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불쾌와 진노의 대상이지만, 그분의 진노는 후자에 대해 성경에서 더 특별히 나타납니다. 시온의 죄인들은 지옥에서 가장 낮은 곳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는 천국에 가장 가깝게 높임을 받지만, 다른 세상에서는 지옥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위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온의 죄인들은 참 종교를 고백하기 때문에 모두 위선자입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의식에 참석하고 하느님을 숭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이 위선입니다.

그들은 장차 두려워할 것이나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조용하고 안전합니다. 가장 끔찍한 위협과 가장 시끄러운 경고도 그들을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다지 감동을 받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자고 세상적인 걱정거리를 별다른 방해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설교해도 그들을 깨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죽음도 그들을 두려워하게 하지 못하며 다른 사람이 깨어나 회심하는 것을 보는 것도 그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깨어나고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즉 두려움의 위대함과 갑작스런 두려움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1. 두려움의 위대함: 놀라움은 높은 수준의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놀라움의 정도가 될 것입니다. 시온의 죄인들 중 일부는 지금 어느 정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때때로 어느 정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옥과 같은 곳이 있다는 것을 실제로 확신하지는 않지만, 그곳이 있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때때로 양심으로부터 내적인 성추행을 당하지만, 미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 철저히 노력할 정도의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그들이 견딜 수있을만큼 충분히 두려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공포가 물처럼 그들을 붙잡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두려움이 항폐함으로 다가오고 고통과 괴로움이 그들에게 다가온다고 읽습니다 (잠 1:27). 또한 악인에 대해서는 전쟁을 준비하는 왕처럼 환난과 고뇌가 그를 압도할 것이라고 매우 단호하게 말합니다(욥 15:24).

그러면 아무리 강인한 마음이라도 두려움에 녹아내릴 것입니다. 정신이 강건하고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신을 경멸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물처럼 약해지고 어린 아이의 마음처럼 약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 가장 내성적 인 사람은 그의 두려움을 숨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이 창백 해지고 얼굴에 놀라움이 나타나고 모든 관절이 떨리고 모든 뼈가 흔들리고 무릎이 서로 부딪힐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외치는 소리와 가장 음침한 비명을 지르는 것을 자제하지 못할 것입니다.

2. 그들은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시온의 죄인들은 종종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처럼 놀라기 전까지는 안전함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음침한 공포에 휩싸여 안전한 잠에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예상치 못한 재앙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그들이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재앙이 예상치 못한 계절에 다가올 것입니다.

악인들이 이렇게 두려움에 놀라게 될 때와 관련하여 : 그것은 종종 죽음의 침대에서 그렇게됩니다. 일생 동안 많은 일들이 지나가는데, 그 중 많은 일들이 그들의 영혼에 공포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조건과 환경에 처한 다른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볼 때와 같이, 그들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불확실하고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안전하지 않은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죄인들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나이를 먹었지만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에 있는지,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가질 기회가 얼마나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사라졌는지, 남은 것이 얼마나 적은지를 생각하면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다가오면 죄인은 종종 놀라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처음 병에 걸렸을 때, 그는 회복될 것이라는 큰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절할 것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희망으로 자신을 아첨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염병이 그에게 많이 퍼지고 그가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때, 의사의 모든 약이 헛되고 친구들의 모든 보살핌과 노력이 아무 소용이없고 아무것도 도움이되지 않는 것 같고 힘이 사라지고 친구들이 그를 위해 울고 그의 경우를 절망적으로 여기는 것을 볼 때; 의사의 얼굴과 행동으로 볼 때, 그는 자신의 사건을 과거의 희망으로 여기고 아마도 방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의 친구들이 서로에게 신호를 보내고, 그가 죽음에 맞았다고 생각하거나, 그의 극한 부분이 차가워지고, 그의 얼굴과 호흡 방식과 맥박이 죽음을 보여주고, 그가 시작될 것이라고 서로에게 말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차가운 죽음의 땀; 그리고 아마도 누군가가 그에게 최악의 상황을 알려야 할 의무와 신실함에 묶여 있다고 생각하여 와서 그가 죽어 가고 있는지 여부를 물어볼 때, 시온의 죄인이 얼마나 두려움에 놀랐습니까! 그의 마음이 어찌 두려움으로 녹는가!

동시에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면 어떻게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그의 말을 들어주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또한 그의 친구들과 아마도 목사가 그를 위해 간절히기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기도가 응답되어 그가 회복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마음이 어찌 그 안에서 가라앉고 죽는가! 그가 어찌 겁에 질린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는가!

... 창백하고 암울한 죽음이 그의 얼굴을 응시하고 몇 시간 또는 몇 분 안에 광대 한 영원을 볼 때 모든 것이 그에게 어떻게 보일까요... 그는 물에 빠진 불쌍한 사람처럼 가늘고 부서지기 쉬운 나뭇 가지를 붙잡고 손이 닿는 모든 것을 움켜 쥐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점점 더 그에게 다가오면서 그는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삶에 대한 모든 희망이 실패하고 자신이 죽어야한다는 것을 알게됩니다.

오! 그 앞에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는 희망을 품고 있었지만 그의 희망은 모두 무너졌습니다. 그는 이 세상과 그것에 속한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을 봅니다. 이제 지옥에 대한 생각이 놀라움과 함께 그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오! 그는 어떻게 세상 밖으로 나갈까요?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죄가 그의 얼굴을 응시합니다. 오, 무서운 영원의 만! 그는 아마도 병에 걸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병이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죽기 전에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는 간청하고 애원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불쌍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동시에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고, 매일매일 자신의 영혼을 비취줄 빛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아! 이제 그는 죽어가고 있었고 그의 친구들은 그에게 죽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물었습니다. 빛이 보이느냐고요? 하느님께서 그에게 어떤 은총을 주시지 않으셨느냐고요? 그리고 그는 말을 할 수 있다면 가난하고 흔들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아니오"라고 대답합니다.

이제 죽음은 그에게 점점 더 다가오고, 그는 영원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의 영혼이 느끼는 두려움, 불안감, 후회, 끔찍한 공포와 놀라움을 누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말을 할 수 있었던 어떤 사람들은 "오, 영원! 영원!", "오! 한 치의 시간 동안 천 개의 세계!"라고 실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 그들이 조금만 더 살 수 있다면! 그러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가야 합니다. 그들은 자연의 틀이 해체되는 것을 느끼고 영혼이 단지 가고 있음을 인식합니다. 때때로 이성의 행사가 마지막까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영혼이 구세주 나 신성한 자비에 대한 최소한의 증거도없이 영원의 가장자리와 지옥의 가장자리에서 도약하려고 할 때 육체와의 결박을 끊는 마지막 순간에 영혼에서 느껴지는 것-그리스도없는 영혼이이 순간에 가끔 느끼는 것은 아무도 알 수 없으며 우리의 개념의 나침반 안에 있지 않습니다.

죄인의 떠난 영혼의 비참함은 지금 느끼는 것 외에도 아직 다가올 일에 대한 놀라운 두려움으로 상당 부분 구성됩니다. 영혼과 육체의 결합이 실제로 깨지고 육체가 마지막 숨을 헐떡일 때 영혼은 옛 거처를 버리고 악마의 손에 넘어가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향해 날아가는 것보다 더 격렬하게 그것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잔인한 손에 얼마나 끔찍하게 떨어질까요!

그리고 영혼이 지옥으로 끌려가 고통을 당하고 전능자의 진노를 받고 압도 당하고 짓밟힐 때, 영혼은 아직 남아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놀랄 것입니다. 이 고통이 영원토록 남아있을 것을 생각하면, 오, 그것이 어떻게 비참한 영혼을 채우고 압도하고 가라 앉힐 것인가! 이 고통이 끝없이 지속될 것을 생각하면 어찌 마음이 밀랍처럼 녹아내리랴! 그것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영혼을 어둠과 우울함의 바닥없는 구렁이에 가라 앉힐 것인가! 그 교만하고 강건한 영들, 마귀들조차도 심판의 날에 겪게 될 더 큰 고통에 대한 생각에 떨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불쌍한 인간의 영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미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고통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생각에 어떻게 떨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때때로 심판의 날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지옥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은 어떻게 두려워합니까, 그들은 그것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으며, 그들이 이미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날이 올 때마다 그들이 심판자의 원편에 서서 무서운 형을 받아야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영혼과 몸으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야하며 그들의 불행이 지금보다 백 배 더 클 것이라는 것을 아마 알고있을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에서 그들은 두려움에 떨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나타나시고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악한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놀라게 될 것입니다. 저주받은 불쌍한 영혼은 그것을 기대하며 육신을 떠난 순간부터 매일 매시간 떨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언제가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서 그날이 왔다는 경보가 울리면 그것은 참으로 무서운 경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지옥의 동굴을 비명 소리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저주받은 자들의 영혼이 그들의 몸으로 들어갈 때, 그것은 다가올 일에 대한 놀라운 공포로 가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덤에서 고개를 들어 심판자를 보게 될 때, 그것은 가장 끔찍한 광경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기꺼이 무덤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몸을 숨길 것이며, 이 끔찍한 광경을 피하기 위해 이전의 비참한 상태인 지옥으로 돌아가서 몸을 숨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온에 있는 죄인들이 땅에서 살아서 발견될 때 이 광경을 보게 되면 두려움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불쌍한 죄인들이 죽어갈 때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큼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이 광경을 보러 올 때 그들을 사로 잡을 공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상에 그것을 견딜 수있는 사악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부자이든 가난하든, 늙었든 젊었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종이든 주인이든, 왕이든 신하든,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그가 자랑스러워하고 용감하고 강건해지게 하소서.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가 이 광경을 보게 되면 즉시 그의 영혼이 가라앉고, 허리의 관절이 풀려서 그의 얼굴이 죽음보다 더 끔찍해질 것이다. 적을 마주해도 두려움을 보이지 않고 대포 소리만 들어도 벌벌 떨던 부유한 장군들과 용맹한 장군들, 왕자들은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고 심판자의 위엄을 보게 되면 벌벌 떨며 비명을 지를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이빨을 재잘 거리게하고 날아가서 동굴과 바위에 몸을 숨기도록 만들 것입니다. 산, 바위와 산을 향해 울부 짖으며 심판의 진노로부터 그들을 덮으십시오.

그들이 심판대 앞에 끌려갈 때 두려움에 떨 것입니다. 악인들은 죽음을 맞이하려고 할 때 주저하지만, 위대한 심판자를 만나러 올 때는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심판관 앞에 서서 그분의 왼손에 놓일 때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놀라게 될 것입니다. 심판자의 위엄은 그들에게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보고 수색하고 꿰뚫어 보는 그분의 순수하고 거룩한 눈은 그들의 심장을 꿰뚫는 번개보다 천 배나 더 끔찍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무서운 형벌의 말씀을 듣고 떨리는 기대 속에 서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형벌에 대한 끔찍한 기대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해야합니까, 그 청문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디로 날아갈까요? 그들은 그것을 듣지 않기 위해 귀를 닫을 수 없습니다.

형이 선고될 때 그들은 두려움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심판이 끝날 때, 그 끔찍한 운명은 재판관에 의해 발화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 들었던 것 중 가장 끔찍한 목소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영원히 고통받을 세상에 불이 타오르는 것을 보게 될 때 두려움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형이 선고되면 그리스도께서는 축복받은 성도들과 영광스러운

천사들과 함께 이 낮은 세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곧 불이 저주받은 무리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놀라게 될 것이며, 그 불은 참으로 무서운 불로 보일 것입니다.....그들은 그 불길을 피하기 위해 무엇을해야하며 어디로 가야합니까? 그들은 어디로 숨을까요? 그들이 구멍으로 기어 들어가거나 땅의 동굴로 기어 들어가거나 땅의 중앙으로 기어 내려갈 수 있다면 헛된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산 밑바닥에 불을 붙이고 가장 낮은 지옥을 태울 것입니다. 그들은 날아갈 곳도, 몸을 숨길 곳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완전히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죄인임을 알게 될 모든 사람, 특히 시온의 죄인들과 함께 그렇게 될 것입니다.